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MIL-SPEC

블랑팡(Blancpain)이 1950년대 선보인 빈티지 피스 중 하나이자 수밀성 (water tightness) 관련 인디케이터를 갖춘 피프티패덤즈(Fifty Fathoms)를 재 해석하다.

피프티패덤즈의 역사에는 두 개의 혈통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첫 번째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30년간 블랑팡의 CEO였던 열정적인 다이버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의 혈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랑스 해군의 전투 잠수 부대를 만들고, 그들의 물속 임무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시계를 찾았던 캡틴 로베르 밥 말루비에르(Robert “Bob” Maloubier)와 클로드 리포(Claude Riffaud) 대위의 혈통이다.

장-자크 피슈테르는 1950년대 초반 이미 잠수를 스포츠로서 즐긴 선구자였다. 자신의 물속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다이버의 생명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타임키퍼 장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장비가 아직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랑팡의 수장으로서 그는 워치메이킹 팀에게 물속 환경에서 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라는 어려운 도전 과제를 부여했다.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 명확했다. 바로 방수 기능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중으로 보호하는 더블 실 크라운 시스템(double sealed crown system)을 고안했다. 크라운을 고정하는 스크루가 따로 없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이빙 중에 크라운이 의도치 않게 당겨졌을 때도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시계를 보호할 수 있었다. 내부에 자리한 두 번째 실(seal)은 시계의 수밀성(water tightness, 물의 침투, 흡수, 투과를 막는 성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장-자크 피슈테르는 이 발명품으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케이스백에 사용한 밀폐 시스템 역시 특허를 획득했다. 케이스백을 스크루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O» 링이 살짝 뒤틀리는 현상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완벽한 밀폐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하지만 피슈테르는 별도의 통로(channel)를 만들어 그 안에 «O» 링을 삽입하고 추가로 금속 디스크를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 밀폐를 보장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도전 과제 해결에 나섰다. 잠수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로테이팅 베젤이 그것이었다. 그는 분침과 반대쪽으로 베젤을 회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방식으로 다이버는 분침을 이용해 베젤의 인덱스를 읽어 물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피슈테르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베젤이 잘못 움직여질 경우 측정에 오차가 생기고,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피슈테르는 의도하지 않게 베젤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차단 메커니즘(blocking mechanism)까지 갖추며 완벽을 기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으로 또한 번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후 블랑팡은 다이빙 시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능 중 하나인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을 소개했다.

흐릿한 물속에서 잠수를 할 때에는 가독성이 특히 중요했다. 그래서 장-자크 피슈테르는 커다란 직경의 피프티패덤즈, 그리고 블랙 배경에서 대비를 이루며 빛을 발하는 화이트 발광 인덱스와 핸드를 채택했다. 또한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는데, 이는 오토매틱 와인딩 시계가 매뉴얼 와인딩 시계와 비교해 크라운을 감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마모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이와 함께 1952년 초 밥 말루비에르와 클로드 리포는 자신의 수중 임무에 적절한 시계를 찾고 있었다. 두 명의 장교는 다이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로서의 시계를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머리를 모아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 장비의 특정 조건들을 있었는데, 방수 기능을 지닌 프랑스 시계들을 가지고 시행한 첫 테스트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그 시계들은 모두 너무 작았고, 다이얼은 읽기 어려웠으며, 케이스는 전혀 방수가 되지 않았다.

장-자크 피슈테르와 이 두 해군 장교들이 드디어 조우했다. 1953년, 블랑팡은 그들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테스트용 시계를 프랑스 해군에 전달했다. 이 시계는 모든 테스트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결국 프랑스 전투 다이빙 부대의 필수 장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전 세계 해군 부대에서도 이 시계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유니크한 타임피스, 피프티패덤즈(Fifty Fathoms)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장-자크 피슈테르는 дай버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고심했고, 시계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수밀성을 확인해주는 디스크다. 만약 그 어떤 액체라도 시계 케이스 안으로 침투하면 6시 방향의 작은 디스크가 화이트에서 레드로 컬러를 바꾸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준다. 다이얼 위의 이 디스크는 MIL-SPEC 1이라 불린 피프티패덤즈 모델을 통해 처음 등장했고, 1957~1958년 군대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며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1958년 초에는 미국 해군이 수중 임무에서 사용할 시계를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며 다양한 시계들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후 피프티패덤즈가 미국 전투 잠수 부대원들의 손목에 채워졌고, 미국에서 추후 제작하는 제품들의 참고용 시계가 되었다. 한편 블랑팡은 엘리트 UDT와 네이비실(Navy Seal)에 MIL-SPEC 1 시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1960년대 초반 이는 MIL-SPEC 2로 진화하며 «토르넥-레이빌(Tornek-Rayville)», TR-900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미국 해군이 요청한 수밀성 디스크가 모든 모델에 탑재되어 있었다.

2017년 신제품

트리뷰트 투 피프티패덤즈 MIL-SPEC(Tribute to Fifty Fathoms MIL-SPEC)에는 블랑팡의 인하우스 오토매틱 와인딩 칼리버 1151이 탑재되어 있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메카니컬 베젤을 포함한 210개 부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4일까지 파워리저브 가능하다. 4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에 탑재된 무브먼트는 NAC(플래티넘 합금) 코팅 처리한 솔리드 골드 와인딩 로터와 블랑팡 로고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밸런스휠 스프링은 많은 장점을 지닌 소재인 실리콘 소재로 제작했다. 실리콘은 밀도가 낮아 가볍고, 그래서 충격에 더욱 강한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성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최적화된 등시운동(isochronism)이 가능한 형태로서 타임키퍼의 정확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모델에서도 1953년 오리지널 피프티패덤즈를 비롯해 이후 다이빙 시계에서 접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특징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블랙 다이얼에서는 슈퍼루미노바(Superluminova) 인덱스와 1950년대 MIL-SPEC 1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수밀성 디스크를 발견할 수 있다.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소재의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2003년 50주년 피프티패덤즈와 함께 처음 등장한 블랑팡의 발명품이다)은 그 아래 빛을 발하는 인덱스들을 보호하고 있다.

방수는 30 bar, 300m까지 가능하다. 500개 한정 생산하며, NATO 스트랩, 돛에 사용하는 세일 클로스(sailcloth) 캔버스 스트랩, 혹은 버클을 갖춘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